

WCC운동과 종교다원주의 신학 1

행 4:12

바이어하우스 학회
2019. 봄 세미나
절제회관

CIA 2008년 7월 세계 종교인구 통계자료

- ▶ (전세계 인구 : 6,677,563,921)
- ▶ 세계 6대종교와 종교 인구수
- ▶ <전 세계 종교 인구수>
- ▶ 1위 - 이슬람교.....: 1,147,494,000 명 / 비율 19.60%
- ▶ 2위 - 가톨릭교.....: 1,040,354,000 명 / 비율 17.80%
- ▶ 3위 - 힌두교.....: 746,797,000 명 / 비율 12.80%
- ▶ 4위 - 개신교.....: 360,913,000 명 / 비율 6.20%
- ▶ 5위 - 불교.....: 353,141,000 명 / 비율 6.00%
- ▶ 6위 - 그리스정교회 : 223,204,000 명 / 비율 3.80%
- ▶ 그리스도교 전체는 1,624,471,000 명 / 비율 38.00%
- ▶ <http://cafe.daum.net/sawomen/Noq0/358?q=%EC%84%B8%EA%B3%84%20%EC%A2%85%EA%B5%90%20%EC%9D%B8%EA%B5%AC%20%EC%88%9C%EC%9C%84>

세계종교인 비율

제이슨 맨드릭,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2011, 45.

- ▶ 2010년도
- ▶ 기독교 32%
 - 가톨릭 16%
 - 개신교 8%
 - 정교회 3.5%
 - 성공회 2%
- ▶ 이슬람교 22%
- ▶ 힌두교 15%
- ▶ 불교 7%
- ▶ 무교 13%
- ▶ 동양종교(혼합종교) 6%
- ▶ 종족종교 3%

가톨릭 인구 급성장

- 2010년 세계 가톨릭 신자 수: 11억 9567만 명
- ▶ 지구 인구의 17.5%
- ▶ 아시아: 필리핀 가톨릭 인구: 국민의 82%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 가량이 거주하는 땅이며, 그 가운데 중국과 인도는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 ▶ 중남미 대륙: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대륙:
(브라질: 1억 6326만 명, 멕시코의 가톨릭 인구: 9962만 명)
- ▶ 아메리카: 63.2% (인구대비 신자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 ▶ 유럽 39.9%,
- ▶ 오세아니아 26%,
- ▶ 아프리카 18.3%,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최근 발행한 「교회통계 연감(2010년)」

기독교인 감소 이유

제이슨 맨드릭,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2011, 37. 45.

- ▶ 20-21세기의 종교세계의 동향:
세계화, 기독교세속화, 다원주의, 자유주의,
전통종교 강화, 이슬람 확장, 기독교 박해
- ▶ 기독교 박해 50개국:
이슬람교 35개국,
세속주의 공산주의 6개국,
불교 4개국,
힌두교 1개국

WCC 회원숫자

- 회원교파 숫자: 340개 이상
- 회원교인 숫자: 5억 이상
- <http://oikoumene.tistory.com/43>

WCC에 가입한 한국교단: 8교단

- ▶ 기독교장로회
 - 예수교장로회(통합)
 - 기독교감리회
 - 성공회
 - 구세군
 - 복음교회
 - 정교회
 - 기하성
-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mjiny&logNo=10158064813>

WCC 신학적 고백

- ▶ WCC 회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교회들로서 구성한다. "(1948년)
-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mjiny&logNo=10158064813>
- 그러나 점차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에큐메니칼 정신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

WCC 신앙고백

- ▶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하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이다.”
- ▶ **정통 기독교론**(451년 칼케돈)과 **정통 삼위일체론**(381년 네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을 배경으로 하는 ‘교리헌장’(the Basis)을 공통분모로 하여, 코이노니아와 증언과 섬김을 위하여 **다양한 신앙고백들과 다양한 신학들을 추구** 한다. (1961년)

<http://oikoumene.tistory.com/43>

1961년 제 3차 WCC총회의 신학적 변질

- ▶ 1961년 인도 뉴델리 WCC 제3차 총회:
 - ▶ 죠셉 시틀러(Joseph Sittler):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 구원”개념 제시
- ▶ 1968년 스웨덴 옉살라 WCC 제4차 총회:
 - ▶ 발터 홀렌 베거(W. Hollen weger): “교회 담장밖에 계시는 그리스도” 제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
 - ▶ 종교간의 종교다원주의적 대화: 선교 목적은 세계평화와 협력이다. 복음전파가 아니다. 개종도 아니다.
 - ▶ 유일한 ‘선교 방법’은 “대화”다.
 - ▶ 구원의 의미는 ‘영혼구원’이 아니고 ‘사회구원’이다.
 - ▶ 해방신학 등장: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방이 목표.
- ▶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mjiny&logNo=10158064813>

1991 제 7차 WCC 총회 ‘성령론’의 변질

- ▶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조직신학교수 정현경의 WCC 총회 강연내용:
- ▶ “오소서! 흑인여자 이집트인 **하갈의 영...**,
- ▶ 오소서! **우리아의 영...**,
- ▶ 오소서! **입다 딸의 영...**,
- ▶ 오소서! ... **땅과 공기와 물의 혼이여...**
- ▶ 오소서! 십자가에서 착취 당하고 죽임을 당한 우리 형제 **예수의 영이여!**”
- ▶ 기독교연합신문 1991. 3. 17. 정현경교수 WCC 제 7차 캔버러총회 주제강연 전문: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연합신문 1991. 3. 17. 정현경교수 WCC 제 7차
캔버러총회 주제강연 전문: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
롭게 하소서”

- ▶ “한 맺힌 영혼은 성령의 초상”
- ▶ “성령 사상은 **여성 신 관음**으로부터”
- ▶ “내게 성령의 사상은 관음으로부터 왔습니다”
- ▶ “이 분은(관음보살)... 그리스도의 **여성적 상** (이
미지)”
- ▶ 이 땅은 “한으로 가득 찬 **성령의 땅**”
- ▶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필자의 질문: **성령과 사령(귀신)
의 차이는?**
 - 장미꽃과 그 향기 또는 그 꽃과 붉은 색의 차이다.

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다위를 표류하는 보트위에서 굶주려다 죽어간 베트남 민중의 영혼이며,
오소서! 마하트마 간디, 스티브 비코, 마틴 루터 킹, 말

정현경 교수의 초혼제 정현경 이화여대 교수가 세계 교회협의회 제7차 총회 주제를 감언동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燒紙)를 불태운 뒤 그 재를 하늘로 뿌려줄려고 있다.

물의 땅,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은 분노이며 양심이며, 쓰라
림이며, 비참함이며, 깎여진
심정이며, 한은 자유를 위해
무정하게 쓰라린 힘입니다. 전
공적으로 밝히게 하겠습니다.

임당한 민중들은 떠도는 영혼,
억압된 한 맺힌 영혼들이 됩니
다. 그들은 모든 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옳게 하
려는 기회를 찾습니다.

의 음성을 듣고 또 찬물만 것을 옮겨 하려는 영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들 억압된 하얀 영들은 성경의 생명을 위해 말하는 바 지혜를 통과시키는 매개자

가 되어왔습니다. 이들 영혼들의 외침을 듣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우리 모든 조상들이 여기 우리들에게 출연하여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우리에게

그 영혼들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성령의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임재를 느끼고, 만지고,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맺친 영들로 가득한 내 민족의 땅에서 와서 나는 대량학살된 원주민들의 가득한 영혼, 한으로 가득한 다른 영들의 땅에서 여러분들과 연결하고자 합니

다. 여기 호주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 어머니의 땅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선행해서 오시기를 기도하려고 함께 모입니다. 심로 이것은 좋은 기

회이며 큰 가족의 모임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 우
리의 방문을 축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심정
은 페르시아만에서 진행중인
전쟁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뽕국
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웁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
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렘 31: 15)
이것은 눈물의 순간입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을 위한
라헬의 폭렬한 곡성은 너무나
크게 울립니다. 전쟁에서 그들
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아
내들과 자매들과 언니들의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더함
이 슬퍼하기 위하여 「통곡의
벽」이 필요합니다. 「모든 고초
를 이 고봉으로 탄식하는」(참 8

: 22) 죽음의 냄새에 찰라쉴어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전쟁 무기로서 이 어리석은 선택의 파괴가 한창인 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시는
영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령계 필사적으로 도울을
청하는 기도 '성령이여 오소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기도는 무엇
을 의미하는가? "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뒤흔박박하게 도
어 버렸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여 주시
옵소서!" 오셔서 결구정돈

중단시키시고 환경파괴를 고쳐
"부수석"라고 말하고 있습
니까? 아니면 "오 하나님 우리
가 알기에 당신을 가장 강한
전사이며 전능하시며 당신의
무기가 사담 후세인과 부수 보

다도 더 강하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은 우리가 이 초보적인 믿음
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두
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
든 책으로 어떻게 하기 위한 모
든 책에의 상과 예제를

지 않으려 변명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려는 유혹이 아니었
습니까? 이러한 초보적인 기도
를 한 수년 후에 나는 죄 많
은 인간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
치를 치유하는 어떤 마술적인

나는 또한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나쁜자들을 멸하시는 바람직한 전책의 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잔혹한 생명의 파괴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와 더불어 비탄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바깥, 생각할 주님으로 우리와 모든 만물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

명의 바람,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에서 나
오게 한 권능이요, 죽은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자
유 공로체로서 공회를 시작하
게한 신령이셨습니다. 또한 무
리는 지인의 아름다운 과선,
그리고 생명을 위한 그들의 분
리짓들과 자비를 위한 미성년
의 무죄죽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신령을 경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 민중들의 연인되고 한결한 열매의 비명과 자연의 회복과 주주 속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한 이희를 할 수 있을 때, 자유를 위한 포식함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하는 피조물의 대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의 성령으로부터 오순
절의 성령으로

어쨌든 이 시간 우리들의 주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표식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비참이 우리를 질식하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떼어놓습니까?

까? 나는 그것을 바벨의 고
거룩한 영이라(산 11: 1-9)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소
위 위를 향하여 움직이는 영이
며 육신과 부활의 영입니다.
바벨의 이야기는 끝없는 오
기환영의 이야기입니다. 이

육의 탑은 모든 사람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은 상호 대화 없으며 더 이상 상호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호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

속박되었습니다. 무리 형제 에
수는 이 계절스러운 욕망을
‘말론’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
도 두 주인을 삼길 수 없다. 나
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

말론, 그것의 후원과 공로에
기인하여 큰 부를 가져다주는
데 말론은 보다 많은 부를 소
유하기 위하여 민중을 파괴하
고 죽입니다. 이 소유를 위한

고 마침내 우리들의 연약한 지
구를 파괴시킵니다.



Seit Frau Chung im Februar 1991 bei der Vollversammlung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in Canberra die Weltbühne betrat und das Foto von ihrem Feuertanz um die Welt ging, gilt die südkoreanische Theologin als eine Identifikationsgestalt für Frauen der ganzen Welt und als „gefährlich“, weil sie urwüchsige religiöse Traditionen Asiens in ihre christliche Spiritualität einbezieht. Chung Hyun Kyung (geb. 1956) ist Professorin für Theologie an der Frauen-Universität von Seoul.

Chung Hyun Kyung spricht von einem Vulkanausbruch, der sich in den Herzen asiatischer Frauen anbahnt und das Beste aus einer jahrtausendealten Kultur mit christlichen Gedanken verbindet, nicht ohne den kolonialistischen und patriarchalen Überfremdungen des Christentums eine entschiedene Absage zu erteilen. Das Buch enthält auch den Vortrag Frau Chungs von Canberra.

Kreuz Verlag

ISBN 3 7831 1204 4

Chung Hyun Kyung
**SCHAMANIN IM BAUCH
CHRISTIN IM KOPF**



C h u n g

Hyun Kyung

SCHAMANIN IM BAUCH CHRISTIN IM KOPF

Frauen Asiens
im Aufbruch



K R E U Z
Entwürfe

2013년 제 10차 WCC 부산총회 참가자들



WCC의 Missio Dei 신학의 구원관

Missio Dei 의 뜻: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를 거부하는 말)

- ▶ 구원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역사 자체 안에 나타나는 ‘샬롬’(Shalom, 평화)이다.
 - ▶ ‘샬롬’이 현실에서 성취된다.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샬롬이 곧 구원이다.
 - ▶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도구이다.
- ▶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mjiny&logNo=10158064813>

행4:12 구원

-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 ▶ 구원의 의미: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 (요 3:16)
믿음에 의한 구원 (요 1:12)